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8.(일) 11:00 / 2026. 11. 9.(월) 조간 배포 2026. 11. 6.(금) 16:00

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 검역본부, 영국 및 아시아 4개국 구제역 전문가를 초청해 국가별 구제역 발생 현황 및 진단 기술 공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 구제역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와 몽골,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책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195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60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구제역표준실험실로, 전 세계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백신 적합성 평가 등을 수행

최근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발생하던 SAT 1형 구제역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다양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해외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술 공유 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아시아 주요국 구제역 발생 현황('26): 중국(O형, SAT 1형), 몽골(O, SAT 1형), 베트남(A형), 인도네시아(O형), 말레이시아(O형, A형) 등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아시아 구제역 진단 실험실 간 사전 회의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국가 간 진단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5개국 구제역 책임자들은 국가별 가축 사육 현황을 비롯해 구제역 발생 동향, 백신 접종 정책 및 방역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각국의 구제역 진단 체계와 실제 발생 상황에서의 진단 경험을 소개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분석과 진단 기술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함께 진행된 합동 세미나에는 국내 동물약품 업계와 지방정부의 구제역 진단·방역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구제역 발생 동향과 최신 진단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국가별 구제역 대응 경험을 국내 방역 현장과 산업계에 전달하고, 진단 기술 발전과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며 국내 구제역 정밀진단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분석, 진단 기술 개발 및 영국 등 5개국과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바이러스 전파 양상을 분석하는 등 국내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구제역 발생 정보와 진단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방역 현장과 산업계가 함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국제 진단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해외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축산업 보호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책임자	과 장	김종완 (054-912-0773)
		담당자	연구관	김수미 (054-912-07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